

‘사인 훔치기’ 휴스턴, 무관중+벤치클리어링 금지에 반색?

카메라 이용해 상대 사인 훔쳐 선수들에게 알렸다
MLB닷컴 “아무도 이 팀 향해 야유 못해” 비꼬아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사인 훔치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휴스턴 애스트로스 입장에서는 ‘무관중’이라는 악재가 오히려 호재가 될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20일(한국시간) 30개 팀들의 올 시즌 예상 전망을 게재하며 구단별 최상의 시나리오를 전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우 에이스 류현진(33)이 사이영상 후보군에 포함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로 꼽힌 것을 비롯, 대체적으로 팀별 키플레이어가 소개됐다. 그러나 휴스턴의 경우 이례적으로 ‘무관중’과 ‘벤치클리어링 금지’ 규칙이 언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올 시즌은

이를 주도한 제프 트라우 단장과 A.J. 힌치 감독에 대해선 1년 자격 정지가 내려졌고, 구단에는 벌금 500만달러(약 58억원)가 부과됐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 신인드래프트 1~2라운드 지명권도 박탈됐다.
휴스턴은 사건과 연루된 트라우 단장과 힌치 감독을 경질했고 당시 휴스턴 소속이었던 알렉스 코라 보스턴 레드삭스 감독과 카를로스 벨트란 뉴욕 메츠 감독도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휴스턴은 더스티 베이커 감독을 선임하고 선수단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여전히 팀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이다.
실제 복수의 선수들은 “휴스턴을 만나면 빈볼을 던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올 봄에 열렸던 시범경기에서 팬들은 휴스턴을 만나면 야유를 퍼부었다. 팬들을 만나기가 두려웠던 휴스턴에게는 ‘무관중’이 다행일지 모른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는 무관중 경기가 확정됐고, 코로나19 매뉴얼



2017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휴스턴 애스트로스 선수단의 모습.

에 따라 상대 팀과의 벤치클리어링도 금지됐다. 침팬지 금지 및 팬들과의 사인 금지 등 최대한 상대팀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방침을 세웠다.
엠엘비닷컴은 “와우, 이러한 예상은 4달 전만 해도 말도 안 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며 예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세영-최운정, 코다 자매 상대 스크린골프 맞대결 승리

‘코로나19’ 기부 목적 이벤트



김세영과 최운정이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김세영(27·미래에셋)과 최운정(30·볼빅)이 미국의 제사카 코다(27), 넬리 코다(22) 자매와 스크린골프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
김세영과 최운정은 20일 대전에서 열린 ‘골프존 LPGA 스킨스 챌린지’에서 3만900달러를 획득, 1만

상금을 획득했다. 코다 자매 팀은 1만1100달러를 수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골프팬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인 이번 이벤트에서 양 팀이 획득한 상금 3만900달러, 1만9100달러가 각 팀의 이름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경기에 참여한 김세영-최운정 선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좋은 플레이를 통해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께 경기를 펼친 제사카 코다-넬리 코다는 “한국에 있는 김세영 선수, 최운정 선수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선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대회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목포시청 하키팀, 중별선수권대회 우승 “평가재건”

여일부 결승서 아산시청 누르고 우승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하키팀이 중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올 시즌 3개 대회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목포시청 하키팀은 19일 강원도 동해시 선라이즈하키팀에서 열린

제63회 전국중별하키팀선수권대회 여일부 결승에서 아산시청을 만나 득점 없이 비긴 후, 페널티 슈아웃에서 2:0으로 승리하며 대회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목포시청은 인천시체육회와의 4강전에서 김민정과 조은지의 득점에 힘입어 2:1 승리를 거뒀다.
이후 결승에서 아산시청 마저 잡 재우며 승리를 거둔 목포시청은 지난달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20 KBS배 전국중별하키팀대회 준우승, 제3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팀

회 준우승에 이어 올해 세계 대회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1982년 창단한 목포시청 하키팀은 국내 여자하키팀 일반부 팀 6개 팀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목포시청 하키팀 배상호 감독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의 투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여자하키팀 일반부 팀이 몇 팀 안 되지만 그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목포시청 하키팀을 전통의 명가로 재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창단 10주년 광주FC, 축구전용구장서 새 출발

1만석 규모... 필드와 가깝게 가변석 설치



광주는 25일 오후 8시 수원삼성 블루윙즈와 맞붙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13라운드 경기부터 축구전용 구장을 이용한다고 21일 밝혔다.(광주 FC 제공)
창단 10주년을 맞은 프로축구 광주 FC가 축구전용구장에서 새 출발을 한다.
광주는 25일 오후 8시 수원삼성 블루윙즈와 맞붙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13라운드 경기부터 새 구장을 이용한다고 21일 밝혔다.
1만석 규모의 전용구장은 선수들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필드와 가깝게 가변석을 설치했다.

고화질 전광판과 한층 밝아진 조명시설도 갖췄다.
구장 내에 숙소와 훈련시설 등 클럽하우스도 함께 마련했으며 훈련장 2면도 인근에 새로 조성됐다.
광주는 25일 전용구장 개장 경기에서 10주년 유니폼으로 그의 미를 더한다.
구단 관계자는 “창단 10주년, K리그1 복귀와 함께 클럽하우스, 연습구장, 전용구장 등 각종 인프라까지 구축되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팬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새 경기장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는 지난 15일 강원FC와 2020 하나은행 FA컵 16강전을 끝으로 지난 10년간 함께한 광주월드컵경기장과 작별을 고했다.
조인호 기자

배드민턴 국가대표 손완호-성지현 결혼 발표

12월 12일 서울서 결혼식
한국 배드민턴 남녀 국가대표 단식 간판인 손완호(32·인천국제공항)와 성지현(29·인천국제공항)이 부부가 된다.
손완호와 성지현은 오는 12월 12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둘은 남녀 배드민턴 단식의 간판스타로 꼽힌다.
손완호는 2017년 남자단식 세계랭킹 1위에 올랐고, 성지현은 2017년 여자단식 세계랭킹 2위에 올랐다.
손완호는 2017년 세계선수권 동메달을 비롯해 지난해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성지현도 2013년과 2015년 코리아오픈 등에서 정상에 올랐다.
성지현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팀 사령탑을 지냈던 성한국 전 감독의 딸이기도 하다.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코로나19 여파로 대회 전격 취소

시니어 대회 개최 불투명
올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ISU는 21일(한국시간) “2020-21시즌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취소 결정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구성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는 전년도 7월 1일 이전까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선수가 경쟁하는 피겨스케이팅의 메이저 국제 대회로 꼽힌다. 총 7차례 대회를 진행한 뒤 왕중왕전 격인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를 뽑는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별 이동 등에 제한이 따르면서 ISU는 대회 취소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랑프리 주니어 무대에서 많은 유망주를 배출한 한국 피겨 스케이팅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3차·6차 대회를 우승했던 이해인(15·한강중)을 비롯해 박연정(14·하계중), 위서영(15·도장중) 등은 국제 무대 참가 대신 개인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만 17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ISU는 내달 3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 현재 상태를 살피고 시니어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에서는 피겨 간판 유영(16·수리고) 등이 시니어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순천시 ‘소비자 선정 스포츠레저 대상’ 수상

광·레저시설 부문 대상
순천시(시장 허석)가 ‘2020년 소비자 선정 스포츠레저대상’ 관광·레저시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데일리스포츠한국이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리빙TV가 후원하는 이 상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투표와 소비자평가단의 설문조사, 학계·전문가로 꾸려진 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종합해 14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은 순천시와 데일리스포츠한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순천은 다양한 희귀 철새의 방문지이자 많은 습지생물들의 서식지로 갯벌, 갈대밭, 하천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은 지난 해 전국 최대 방문객을 기록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과 세계 최초 탐사르습지도시 지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등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을 넘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만들어 생태가 밥 먹여주는 ‘생태경제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